

環渤海地域의 新石器文化^{*1)}

宮本一夫^{**}

[講演要旨]

環渤海地域의 新石器時代에 있어서 地域區分을 기술한다. 그리고 이 地域區分을 기초로 각 지역의 土器樣式을 비교했을 경우 현재의 각 지역에서 가장 오래 된 土器樣式の 土器製作技術상에는 系統關係가 존재하고, 이 系統은 광범위한 情報帶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거시적인 系統關係와는 달리, 인접한 地域文化 간의 보다 직접적인 文化接觸에 관해 膠東半島(山東半島)와 遼東半島, 遼東과 韓半島 西部와의 비교를 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개의 文化接觸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다음 生業으로써 地域區分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石器를 중심으로 生業을 검토하고, 특히 遼東과 韓半島 西部와의 生業상의 聯關性을 검토하며, 동시에 石器에 보이는 文化接觸의 실체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新石器時代로 부터 靑銅器時代로의 이행 과정에 관해 環渤海地域 地域文化(地域區分)의 變容을 크게 三段階로 나누어 모델화해서 제시한다.

* 이 글은 1995년 11월 20일(월) 제57회 공개강연회에서 宮本一夫 先生이 발표한 요지문이다.

** 九州大學文學部

머리말

우선 環渤海地域은 新石器時代의 土器樣式으로 보았을 경우 山東, 河北, 遼西, 遼東, 한반도 서부으로 크게 地域區分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地域區分은 거듭 細分이 가능하고, 遼西에서는 燕山, 大遼河流地域, シラムレン河 以北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遼東에서는 吉長地區, 遼河下流地域, 遼東半島, 鴨綠江流域(西北朝鮮)으로 나눌 수 있다. 山東에 있어서도 膠東半島와 그 以西의 山東地域으로 區分이 가능하다. 여기서 遼西, 遼東, 膠東半島, 한반도 서부를 중심으로 地域文化의 본질을 논한다.

I. 文化樣式的 系統性的 問題

土器樣式으로 본 地域文化의 검토를 행하기 전에 土器樣式 상호간의 系統性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는 地域區分을 넘어 거시적인 안목에서 地域文化의 성립의 母體를 포착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土器樣式的 系統性이라고 하는 것은 土器製作의 技術的 系統을 가리키고 土器製作이라고 하는 정보의 확장, 혹은 전달 경로라는 의미이다. 이때 현재 발견되고 있는 각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토기양식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오랜 土器樣式的 기본적인 器種構成은 罐(深鉢), 鉢(碗), 臺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罐의 器形에 주목하면 平底의 深鉢과 丸底의 深鉢로 크게 나눌 수 있다. 平底의 경우 납작한 바닥 위에서부터 粘土를 돌려 쌓아 가면서 형태를 다듬는다. 丸底의 경우는 泥片貼築法처럼 거푸집에 덩어리를 눌러 붙여 토기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土器의 底部를 두드려 내야만 한다. 따라서 土器製作에는 크게 두가지의 系統差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 이러한 罐의

두가지 土器製作의 系統을, 주목하는 罐에 따라 각기 平底深腹罐, 丸底釜로 나누어 부른다. 그리고 그 분포를 보게 되면, 北方系統과 南方系統의 土器製作系統으로 나뉠 것이다. 平底深腹罐의 분포는 中國 東北部에서 黃河 中流 地域의 內陸部, 혹은 朝鮮半島 東海岸으로 여겨진다. 丸底部는 長江 流域에서 黃河 下流 地域의 山東, 膠東半島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黃海 沿岸 地域의 情報傳達經路중에서 丸底部의 전파 확산을 인정할 수 있다. 한반도의 서부는 丸底釜의 확산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尖底가 아닌, 丸底의 深鉢이 발달한 지역이다.²⁾ 또 한반도 서부에서 深鉢과 함께 器種構成을 갖는 小口罐은 縱方向의 小型의 손잡이가 달렸으나 이러한 손잡이가 붙은 小口罐은 膠東半島에서도 특색을 이루고 있다. 膠東半島에서 한반도 서부으로의 技術的 系統性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 이상에서 기술한 土器樣式을 넘어서는 커다란 技術的 系統性은 지금 각 지역의 가장 오래된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土器樣式的 成立時期에 있어 기층적인 광역의 情報傳達經路, 혹은 地域集團의 相互關聯性이 강한 광역의 情報帶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情報帶도 地域文化 成立背景의 基層部分으로 받아들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文化接觸의 問題

상기한 技術的 共通性으로 보이는 土器製作의 系統性을 情報帶로 하여, 地域文化 相互의 交流를 나타내는 표시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考古學적 共通性이

-
- 1) 宮本一夫 「環渤海新石器時代早期的文化系統」 『東北アジアにおける文名の源流の考古學的研究』 1993年 (平成 4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 (國際共同研究) 報告書 大手前女子大學), 大貫靜夫 「極東の先史文化」 『季刊考古學』 第38號 1992年
 - 2) 大貫靜夫 「東北亞州中的中國東北地區元始文化」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1989年 文物出版社

접촉하는 地域文化로 판단되는 경우, 이것을 각각의 地域文化의 文化接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예를 膠東半島와 遼東半島에서 조망하겠다.

膠東半島와 遼東半島의 土器編年을 文化層의 層位關係와 遺跡간의 相互比較를 통해 보면³⁾ 양 지역의 土器樣式은 각기 가장 오랜 단계인 白石村 1期와 丸底釜이고, 小珠山 下層은 平底深腹罐이다. 따라서 당초에 양 地域은 土器의 系統이 다르고, 相互交流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어진 邱家莊 1期 단계로부터 胎土에 滑石을 섞고, 小珠山 下層으로 판단되는 듯한 文樣을 지닌 土器片이 膠東半島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北莊 1期, 2期에는 圖 2-22·33과 같은 遼東半島의 平底深腹罐이 膠東半島로 판단됨과 동시에 遼東半島의 小珠山 中層과 吳家村의 것이 膠東半島의 土器이다. 彩陶, 觚形杯, 鬲 등은 膠東半島의 土器樣式 중에서도 특수한 土器이고, 日常雜器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土器가 遼東半島에 유입됨과 함께 膠東半島에는 遼東半島의 平底深腹罐이 유입된다. 이렇게 이 단계부터는 서로 土器가 왕래하는 것과 같은 文化交流가 시작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日常雜器에서는 각각의 지역에서의 변화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호의 왕래로부터 土器의 器種構成, 그것이 전환하는 단계가 遼東半島에서 인지된다. 이것이 小珠山 中層의 단계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豆, 杯, 三環足器가 일단 인정되게 되었다. 게다가 杯와 같은 土器에서는 黑陶로 이루어진 것도 출현하고, 膠東半島의 生活樣式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小口罐(甕)과 같은 것은 이 지역의 系統으로는 볼 수 없는 器種이고, 膠東半島의 영향이 原因으로 성립된 土器이다. 다만 그 土器의 外面에 있는 文樣은 이 地域의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生活 樣式 전반이 膠東半島의 영향으로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사람들의 교류를 배경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교섭이

3) 宮本一夫 「海峽を挟む二つの地域 - 山東半島と遼東半島, 朝鮮半島南部と西北九州, その地域性と傳播問題 -」 『考古學研究』 第 37卷 第 2號 1990年

없던 것이 바다를 이용하여 相互往來가 인정되게 되었다. 이 가운데 漁具의 일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통의 漁撈地域으로서 인적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漁撈民의 交流 중에서는 교역이 시작되고, 그 교역의 하나로서 遼東半島의 수암의 玉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⁴⁾. 이러한 인간의 교류 중에는 당연히 인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양 地域의 문화적 壓力을 보았을 때 膠東半島에서 遼東半島로의 영향력이 濃厚하다. 이것을 인간의 移動의 사실로 여기기보다는, 보다 앞선 文化樣式을 교류한 결과로서 遼東半島 人間集團이 받아 들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실 小珠山 上層段階에서 膠東半島의 楊家圈 2期の 강한 영향을 받은 이전의 土器樣式을 변화시켰고, 이어서 雙砬子 1期 段階에서는 粗質黑陶를 탄생시키는 등, 지역적인 자기 정비가 인지된다. 즉 본래의 타 집단의 특성이 표출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다 선진적인 生活樣式을 받아들여지게 된 동향은 雙砬子 2期和 雙砬子 3期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어서 上馬石 A지점 下層 段階以降⁵⁾은 양 지역의 교류를 보이는 土器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단계는 西周期에 해당하고, 膠東半島측이 政治적으로 領土를 제한하고, 遼東半島와 왕래하는 文化交流를 단절했던 것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政治적인 領域이 文化的인 領域도 規制하는 단계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반도 서부의 地域文化에 관해 개관해 보자. 한반도 서부의 土器樣式은 系統的으로는 黃海沿岸地域의 丸底釜의 系統일 가능성을 지적한다. 즉, 주변의 地域文化와는 다른 土器樣式이 현재 가장 오래된 段階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관해서는 현재의 資料로써는 깊은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 만족해 두고 싶다. 이러한 背景 중에 遼東적인 요소가 보여지는 것은 南京1期·2期の 段階부터이다. 臺는 文樣, 혹은 形態적인 특징으로부

4) 岡村秀典 「中國先史時代玉器の生産と流通 - 前三千年紀の遼東半島を中心に -」 『東アジアにおける生産と流通の歴史社會學的研究』 1993年 中國書店

5) 宮本一夫 「遼東半島周代併行土器 變遷 - 上馬石具塚A・BII區 中心 -」 『考古學雜誌』 第76卷 第4號 1991年

터 遼東의 偏堡類型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어떤 文樣의 특색은 한반도 서북에서는 堂山下層에서, 또한 隆帶에 의한 文樣은 堂山上層의 雙鶴里 등에서 확인된다. 즉, 이 段階에 특수한 臺形 土器만이 遼東의 영향으로 한반도 서부에 유입되어 간 것이다. 이 文化接觸은 膠東半島와 遼東半島에 보이는 相互交流와, 그 후의 生活樣式의 轉換이라고 하는 文化接觸과는 달리 일부의 土器만을 일방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취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地域文化의 文化接觸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형태라고 알 수 있는 것이다.

Ⅲ. 生業으로부터 본 地域區分

自然區分은 그것을 배경으로 한 人間集團의 生業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혹은 生業을 성립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植生을 중심으로 한 自然環境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交流關係가 빈번한 膠東半島와 遼東半島도 自然區分으로는 동일한 地域帶로 파악된다. 즉, 環境圈의 同一性이 人間의 交流를 유지하는 背景으로도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植生을 중심으로 하는 自然環境은 新石器時代에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다⁶⁾. 이것은 植生을 중심으로 하는 自然區分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同一植生의 範圍가 時間軸상 變移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對象으로 하는 環渤海地區는 中緯도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緯도가 높은 곳이라서 氣溫과 降水量의 變動이 민감하게 植生의 變動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自然區分도 일정한 變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

6) Laboratory of Quaternary Palynology and Laboratory of Radiocarbon, Kweiyang Institute of Geochemistry, Academia Sinica 1978 Development of Natural Environment in the Southern Part of Liaoning Province during the Last 10,000 Years. Scientia Sinica

응하는 地域文化의 單位, 즉 人間集團의 行動範圍도 變動할 可能性이 있음을 고려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人間集團을 구성하고 있는 生業에 주목하여 生業과 地域區分과의 關係에 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生業이라고 해도 農耕과 狩獵·採集이 복합된 복잡한 經濟體系를 보이고 있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植物遺體, 花粉分析, 動物遺存體 등의 自然遺物로부터의 分析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復元에 다가가야 한다. 여기서는 地域文化의 特性을 파악하기 위해 生業을 꾸리는 道具, 즉 石器에 주목해서 石器의 形態와 組合으로부터 地域文化의 生業, 혹은 地域性이라는 것을 파악하겠다.

여기에서 對象으로 하는 地域은 遼東, 그 중에서도 遼東半島, 그리고 한반도 서부이다. 이는 우선 土器樣式의 비교로부터 膠東半島와 遼東半島의 文化接觸과, 遼東과 한반도 서부와와의 文化接觸에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여기서도 生業의 관점으로부터 이 文化接觸의 의미에 관해 깊이 들어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遼東(遼東半島)의 石器組成은 石鏃, 石斧, 石鋤, 磨盤, 磨棒 등의 조합으로 이 기본적인 器種構成은 한반도 서부의 弓山文化 1·2期부터 金灘里 2文化層까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스투트의 편평한 磨製石鏃의 형태와 제작상의 특색은 매우 유사하다. 이 石器組成의 유사성은 遼東의 小珠山 下層期(新樂下層)와 한반도 서부의 弓山文化 1·2期(智頭里)부터 金灘里 제 2文化層(南京 1·2期)까지만이 아니라, 양 지점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遼東內陸部의 遼東省 本溪縣 馬城子 B洞 下層과 北甸 A洞 下層에서도 확인된다. 馬城子 B洞 下層과 北甸 A洞 下層은 小珠山 中層부터 吳家村期에 상당하는 시기의 것이다⁷⁾. 이 段階까지 遼東의 內陸部와 한반도 서부의 石器組成은 같은 양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遼東의 小珠山 下層期の 瀋陽市 新樂遺跡 下層부터는 麥이 출토되어, 麥 農耕의 가

7) 宮本一夫 「遼東新石器時代土器編年の再檢討」 『東北アジアの考古學的研究』 1995年 同朋舎出版

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 같은 石器組成을 지닌 弓山文化 1·2期の 智塔里 제 2地區 2호 주거지와 南京 2期の 南京遺跡 31號 주거지로부터도 粟이 출토되어, 이 段階의 農耕의 존재가 인정된다. 따라서 遼東과 한반도 서부는 처음 段階에서 같은 石器組成과 더불어 畑作農耕을 지닌 유사한 經濟體系, 즉 生業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生業이라고 하는 평가는 이들의 畑作農耕에 대한 의존도를 문제삼아야 하나, 여기서는 이 이상의 논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遼東半島에서 石器組成의 轉換이 나타나는 것은 小珠山 中層·吳家村 期부터인데 이삭을 따는데 쓰인 石包丁이 출현한다. 그러나 石包丁이 정착화되는 것은 小珠山 上層期이다. 이렇게 새로 출현한 石器의 보급과 정착이라는 변화는 이미 서술해 온 土器의 교류와 遼東半島에서 土器樣式의 전환이라는 변화에 일치할 것이다. 遼東半島의 경우 工具類의 扁平片丸石斧와 石製鑿(柱狀片丸石斧)이 정형화되어 출현하는 것은 雙砬子 3期까지 계속되고 있던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형화한 石器組成과 동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卜骨도 기본적으로 膠東半島와 遼東半島의 文化接觸의 결과로서 遼東半島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遼東半島의 흐름에 대해서 한반도 서부에서는 無文 土器라고 하는 새로운 土器樣式이 성립하는 단계(南京靑銅 1期)에 石包丁, 扁平片丸石斧, 石盤(柱狀片丸石斧), 紡錘車 등의 새로운 石器組成이 성립한다. 이 배경에는 한반도 서부의 새로운 石器組成을 흡수, 소화했던 遼東半島地域과의 文化接觸의 결과로 인정된다. 한반도 서부의 石包丁의 형태도 遼東半島의 石包丁의 형태적 변천 중에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⁸⁾.

이상에서 서술한 石器組成은 遼東과 한반도 서부가 본래 같은 종류의 石器組成을 지녔기 때문에 한반도 서부가 새로운 石器組成을 흡수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遼東과 한반도 서부가 粟과 麥 등의 畑作農耕을 일정한 정도 生業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 같은 生業環境 段階로부터 한반도 서부가

8) 下條信行「日本石庖丁の源流 -弧背弧刃系石庖丁の展開-」『日本民族・文化の生成』1 永井昌文教授退官記念論集 1988年 六興出版

문화적 발전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새로운 石器를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 서부의 土器樣式에서 臺의 선택적 흡수와 같은 선택적 文化吸收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서부의 南京靑銅器 1期以降, 遼東의 美松里형 臺와 遼寧式 銅劍이 한반도 서부에 유입되는 文化交流와 같은 형태이고, 美松里型 臺와 遼寧式 銅劍은 한반도 서부에서 선택적 흡수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IV. 地域區分の 變容

新石器時代부터 靑銅器時代까지의 環渤海地域의 地域文化를 검토했다. 土器樣式을 중심으로 보아 온 地域文化는 반드시 정립된 상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分布域으로서 變容을 이룬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遼西, 遼東, 한반도 서부, 膠東半島의 地域文化의 변용에 관해 그 현상을 서술하겠다.

地域文化의 변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이하의 3단계로 모델화하고, 그 변용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1단계는 遼東半島의 小珠山 下層期에 해당하는 B.C. 5000~3500년대, 2단계는 遼東半島의 小珠山 中層·吳家村期~小珠山 上層期の B.C. 3500~1500년대, 3단계는 遼東半島의 雙砬子 3期부터 上馬石 A區 上層까지의 B.C. 1500~500년대에 해당한다.

제 1단계는 遼西, 遼東, 한반도 서부, 膠東半島가 각기 독립한 地域文化를 보여준다. 그 중 遼西와 遼東은 土器樣式의 계통으로서 동일 계통에 있고, 遼西의 土器樣式은 遼東의 土器樣式의 성립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⁹⁾. 한편 膠東半島와 한반도 서부는 土器樣式의 系統性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했다.

9) 前掲 注8 文獻

이러한 네 개의 地域文化가 제 2단계에는 변용을 이룬다. 遼東의 小地域化이다. 遼東의 小地域을 크게 吉長地區, 遼河下流域, 鴨綠江下流域, 遼東半島로 나누면, 遼河下流域과 鴨綠江流域에는 土器樣式이 지역적으로 同一性이 인정되지만, 吉長地區는 在地的인 土器樣式の 발전이 인정된다. 한편 遼東은 膠東半島와의 활발한 교류가 보이고, 土器樣式の 큰 변혁을 이루었다. 또 한반도 서부도 大洞江下流域과 漢江下流域에서 각기 지역적 특색이 인정된다. 즉 小地域化가 인지되는 것이다.

제 3단계에는 遼河下流域에 遼西로부터의 영향으로 鬲과 鼎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土器樣式이 성립되고, 鬲·鼎의 새로운 土器樣式은 吉長地區에까지 이어진다. 한편 지금까지 밀접한 관계였던 膠東半島와 遼東半島는 西周代이후, 山東地域의 封建諸侯에 의해 領土化됨에 따라 政治的인 교류관계가 끊어진다. 이 과정에서 遼東半島와 鴨綠江下流域의 海濱部를 끼고 밀접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지금까지의 遼東地域은 크게 北方의 遼河下流域과 吉長地區, 南方의 遼東半島와 鴨綠江下流域으로 나뉘고, 遼東의 지역적 통합은 遼寧式 銅劍文化로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통합은 小地域이 단결한 政治적·종교적 통합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 서부에서는 小地域化를 유지하면서 遼東半島·鴨綠江下流域의 지역블럭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새로운 石器組成과 美松里型 土器를 흡수하고, 사회적 변용을 이룬다. 그리고 遼東으로부터 遼寧式 銅劍을 이 단계에서 흡수한다.

이러한 단계적 地域文化의 변용에 관해서 한가지 주목해 둘 점은 膠東半島와 遼東半島에 보이는 관계이다. 바다를 끼고 대치하는 양 지역은 氣候와 植生, 自然地形에서도 유사하고, 동일한 漁撈地域을 지닌 점에서 漁撈技術의 발달과 함께¹⁰⁾ 활발한 교류가 제 2단계 이래로 인지된다. 본래 이러한 활발한 교류는 그대로 지속되었어야 하나, 西周代이후로, 膠東半島側, 혹은 山東半島側에서 黃과

10) 渡辺誠 「中國古代の釣針」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1987年 同朋舎出版

齊 등의 西周封建國家에 의한 諸侯의 성립이 영역을 명확하게 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自然環境에 입각한 교류를 단절시키는 정치적인 단절이 인지된다. 이렇게 보면 西周期이래로, 특히 戰國時代로 간주되는 領土國家의 출현이라는 것이 地域文化의 성립원인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점은 틀림없다.